

2013 가을호

통권 2013-3호



환우의 쾌유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마음까지 치유하는 생명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나를 키우는 말

이 해 인 수녀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활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2013 가을호
통권 2013-3호



환우의 쾌유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마음까지 치유하는 생명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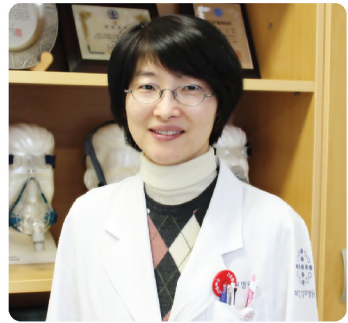
CONTENTS

권두시	02	나를 키우는 말 이해인 수녀
	04	폐암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영미 과장 (호흡기내과)
	05	하늘나라 이삿짐센터 일꾼 안경숙(마리엠마) 수녀
실습생들의 이야기	06	다짐해 봅니다 인제의대 본과 4학년
	07	소중한 시간들 호스피스전문 간호대학원생
팀원들의 이야기	08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간호사들의 이야기
	10	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간호사입니다 류수진 간호사
환자와 가족의 사랑이야기	11	사랑하는 다니엘 아내 다니엘라
	12	은호야, 사랑해 너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13	태수가 사랑하는 성희에게 남편 태수
부산성모병원완화의료센터 소식	14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정서적·사회적·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다.

폐암에 대해 알아봅시다.



최영미 과장(호흡기내과)

폐암은 어떤 병인가요?

가슴 속에는 가운데 심장을 두고 양쪽에 폐가 있습니다.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종양을 이르며, 암세포에 따라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80~85%가 비소세포 폐암으로서,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대세포암이 이에 포함되며, 나머지 15~25%가 소세포 폐암으로서 악성도가 높아 발견 당시 타 장기로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요?

2010년 우리나라 암 통계에 따르면, 남성 발생암의 3위, 여성 발생암의 5위이나, 2011년 암종별 사망률에 따르면 남녀 모두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폐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재발을 잘 하며 완치율이 낮아 사망률이 다른 암에 비해 높습니다.

폐암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폐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진행해도 기침, 객담 같이 감기 비슷한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늦습니다. 객혈, 흉부통증, 신음소리, 호흡곤란, 두통, 체중감소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 외에 흉부사진, 흉부 CT검사, PET-CT검사, 객담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경피적세침 조직검사 등을 통해 진단합니다.

폐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폐암은 소세포 폐암인지 비소세포 폐암인지에 따라, 어느 정도 진행했는가 하는 병기에 따라, 치료받을 환자의 전신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방법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등이 있으며 조기 발견 시 수술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소세포폐암의 경우에는 악성도가 높아 수술이 불가능하며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요법으로 치료합니다.

폐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흡연이 폐암 발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접흡연도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하며,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석면, 비소, 크롬 같은 직업성 요인, 방사성 동위원소예의 노출을 최소화 해야겠습니다.

폐암을 조기 진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폐암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검사방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40세이상 흡연자로서, 특히 30갑년 이상 흡연자일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크므로 조기 진단을 위해 흉부 저선량 CT, 객담 암세포진검사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참고로, 30갑년이란, 하루 흡연하는 담배 갑수와 흡연한 횟수를 곱한 것으로, 하루 1갑 30년 흡연하거나 하루 2갑 15년 흡연하거나 똑같이 30갑년으로 계산됩니다).

“

우리들의 무력함을
그저 바라보고
봉헌해야만 하는 그 고통이
서로 만나 한 송이 거룩한
고통의 꽃을 피우게 하는 곳

”

하늘나라 이삿집센터 일꾼

† 찬미예수님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늦가을 단풍 낙엽이 잔잔한 호수를 만들어 천상 나라를 연상케 하는 계절, 신선한 새벽향이 내 코를 찌르며~ 무언가를 속삭인다. “그들과 함께 하라”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라” 이 외마디 강렬한 호소는 주님께서 내게 건네는 소중한 소명이자 초대이다. 호스피스란 ‘함께 함’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소임터 이곳 호스피스 완화병동은 사랑으로 함께 동반하는 병동이다. 말기암으로 통증을 신음하고 있는 환자의 고통과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무력함을 그저 바라보고 봉헌해야만 하는 그 고통이 서로 만나 한 송이 거룩한 고통의 꽃을 피우게 하는 곳이다.



마리엠마 수녀

물 오른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가장 아름다울 때 또 다른 생명을 위해 떨어지는 낙엽이 되듯 우리 인생의 삶 역시 어떤 모습이면 완숙하여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될 때 천상나라로 자리 이동이 되는 것 같다. 어떤 종교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 각자의 영혼에게 맞는 방법으로 회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정화되어 축복하는 내면의 고백을 토로하며, 마무리를 짓는 영혼의 모습은 거룩함 자체이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무르익었을 때 우리의 영원한 거처 본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완화병동에서 일하는 나는 자칭 하늘나라 이삿집센터 일꾼이다. 일꾼은 ‘바빠야 먹고 산다’라는 속담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곳의 환자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아픔과 고통을 절망감과 위기감으로.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는 여정 중에 계신 분들이다. 각자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신앙적 준비를 거치며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기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이곳은 분명 축복의 자리, 축복이 머무는 자리이다. 또한 이곳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곳을 거쳐 가는 환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이다. 육신의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거룩한 고통을 받고 있는 복된 자들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다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다.

병원 원목과 인연을 맺은 지 횡수로 10여년이 되어간다. 지인들은 ‘수녀님 병원일 그만 하세요. 환자들과 함께 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이 일이 즐거운데요’라고 답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 하느님이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더 큰 영적 충만함과 내적인 뿌리를 내리게 해줌을 느끼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느님의 일을 기쁘고 바쁘게 그러나 여유롭게 살아낼 것이다.

다짐해 봅니다.

인제의료대 본과 4학년

●●● 호스피스 병동에 실습을 간다고 하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어떤 얼굴로 환자들을 볼까? 이었다.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라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므로 거기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하지만 막상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환자들은 생각보다 절망적이지도, 우울하지도 않은 그냥 우리의 이웃이었다. 호스피스 병동을 경험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에게 죽음은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과 호스피스 환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환자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느긋해 보였다.

실습동안 내가 맡은 환자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나이에 비해 훨씬 맑은 눈빛과 밝은 얼굴을 가지신 분으로 의료진한테 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다. 환자 간병은 오전은 할머니가, 오후에는 아들이 담당하였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돌봐 드리시고, 할아버지가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사셨다며 알뜰살뜰 챙겨 드렸다. 할아버지도 늘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말과 미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두분은 매일 기도하시며 편안하게 계셨다.

어떤 사람이든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가득하겠지만 남은 시간을 단순히 불안과 걱정속에만 있다면 더 안타까운 일인 것 같다. 남은 시간 동안 사

랑하는 가족들과 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누구나 태어나고 죽는 건 불변의 사실이다. 태어나는 것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듯 죽음 또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40대의 환자분은 평소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너무 충격이 컸다. 자신은 어차피 죽을 텐데, 아무 의미도 없다며 움직이지도 않고,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고만 하셨다. 이런 환자분을 뵈고 나니 처음 질병에 대해 말해준 의사가 좀 더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상처 받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였다. 과도한 희망을 주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이렇게 모든 삶의 의욕을 상실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환자에게는 남은 시간 동안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일 텐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간다면 삶의 끝이 왔을 때 얼마나 아쉬워하고 후회 할까?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누군가는 의료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였다. 만약 환자가 가족이라면 이런 상황에 몇 마디의 말로 간단하게 진단내리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부를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환자를 가족이라 생각하고, 환자가 부족한 나로 인해 상처 받아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소중한 시간들

호스피스전문 간호대학원생

●●●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유난히 반짝이는 계절,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 실습을 왔는데 일반 병동과 달리 실내 정원과 주변에 잘 정리된 화분이 병동을 밝게 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재 임상에서 근무하지만, 이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아 분주하지 않고 차분해 졌습니다.

팀장님, 수간호사선생님, 사회복지사선생님, 여러 간호사선생님들, 수녀님, 자원봉사자님들이 병동에서 환자에게 한분 한분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보호자의 안부를 묻고, 지금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픈 데는 없는지, 가족들이 서로 주고 받듯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웠던 호스피스가 이런 거구나! 하고 고개가 저절로 끄떡여 집니다. 여러 가지 치료로 인해 지쳐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환자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신체적 증상과 통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시로 환자를 살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조용한 환경과 시간별로 침상정리를 하면서 환자의 안위를 돌보는 모습은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병동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음악, 미술 원예, 무용, 명상 등)으로 환자와 가족

들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병상 생활로 몸과 마음은 힘들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정으로 보듬어 주고 아끼며,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해 감사 하였습니다. 신체적인 불편함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혼자 짊어진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기다리는 어둡고 암울한 곳이 아니라 두렵고 힘든 곧 다가올 혼자만의 긴 여행을 시작하는 문턱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을 공유하고 외롭지 않게 도와주는 의미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웃으실 때는 향기가 퍼지듯 같이 미소 짓게 합니다. 더불어 마음이 따뜻해져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병동이었습니다. 각자의 임상현장으로 돌아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느꼈던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고 어디에서든 외롭고 힘든 길을 걷는 환자들을 돕겠습니다. 저희를 지도해 주신 병동 식구들과 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환자,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간호사들의 이야기?

1.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보람있고, 감동스럽고,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 1) 사별가족들이 방문하여 고마웠음을 전하고, 고인과 함께했던 순간을 추억할 때
- 2) 간호사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이해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하고 알아봐 줄때
- 3) 통증, 증상조절이 되어서 웃고 있는 환자의 모습을 볼 때
- 4) 갈등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힘들었다가 화해하며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표현 할 때
- 5) 환자의 상태를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떠나 갈 때

2.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들의 하루를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 1) 총체적 돌봄 - 환자의 식사, 배변, 통증, 신체활동, 피부상태, 정서 상태 등 모든 것을 확인하고 간호하며, 가족들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도와 드려야 한다.
- 2) 콜벨 - 환자와 가족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간다.
- 3) 희망 -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항상 용기를 주기 때문
- 4) 사랑하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고의 사랑을 주고 싶다.
- 5) 다시 한번 리플레이 -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고 싶다.
- 6) 나 자신과의 싸움 -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 7) 봉사 - 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한다.

3.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는 ○○○이다!”

- 1) 태권 V - 무쇠팔, 무쇠다리 강한 정신력으로 어떤 일이든 잘한다.
- 2) 마라톤 선수다 - 환자와 가족과 함께 힘든 길을 달린다.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의 표시는 마라톤 중간 나눠주는 생수와 응원인 것 같다.



- 3) 어머니, 엄마다 -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환자를 받아들이고 감싸주며, 보듬어 주고 안아준다.
- 4) 등불을 든 여인 - 어두운 길을 가는 환자, 가족들을 환히 비춰주고 밤을 낮처럼 환자들을 돌본다.
- 5) 간호사이다 - 언제나 출근길을 가볍게 하는 원동력은 내가 간호사로서 간호사다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안식처다 - 비바람, 태풍이 불어서 잠시 피할 곳이 필요한 환자, 가족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4. '어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을 희망하시나요?

- 1) 성모마리아의 품과 같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 2) 사랑, 애정이 넘치는 병동, 서로의 아픈 마음을 안아 줄 수 있는 병동,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성장하는 병동이었으면 좋겠다.
- 3)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지막을 함께하며 환자, 가족들을 지지해 주는 병동, 행복이 가득한 병동
- 4) 3합 (환자, 가족, 호스피스 팀원)이 한데 어울려 함께하고, 사랑이 넘치는 병동

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간호사입니다.

●●● 간호대학을 다닐 때, 병원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가 되면 뭐든지 완벽하게 잘 할 수 있을거야'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했다. 그런데 막상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임상에서 담당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혈관주사를 한 두 번은 실패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혼자서 울었던 적도 있었다. 처방 확인, 차트정리가 늦어 낮번 근무자들이 모두 퇴근해도 집에 갈 수 없었고, 컴퓨터 앞에서 밤이 되도록 맡은 일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5월 달에 입사해서 항상 집에 가면 간호사가 적성에 맞는지, 아니면 특별히 내가 잘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늘 고민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그런 고민에서 몇 호실 어느 환자분과 가족들이 어제 어떻게 되셨는지 걱정되고, 휴일이 지나 출근하면 낮익은 환자와 가족들이 반길 때 가까운 친척들을 만나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놀라웠다. 아직 3교대가 힘들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하루하루 노력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될 것을 확신한다. 그것은 환자나 가족들을 보면 너무 좋고, 그들을 통해 힘을 얻기 때문이다.

어느 덧 2년차 간호사가 되어 나름대로



간호사 | 류수진

익숙해지는 업무이지만 늘 초심의 마음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한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이 병동 간호사가 되었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으로 돌보는 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본다. 환자의 임종을 돌보면서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서 저세상으로 가는 환자에게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담당 환자, 가족들이 '참 고마웠어요.' 하시는 한마디가 부족하고 어눌한 나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이 병동, 지금은 환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선배 간호사선생님들처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마음 편하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간호사 파이팅을 외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초록이 점점 짙어져 갈매빛으로 물들어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월의 마지막 날...

병실 창을 통해 간간히 들어오는 산들바람이 나의 기분은 정화시켜 주지만 그 산들바람이 당신의 얼굴에는 그저 스쳐 지나는 허브향 같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아 보이네요.

당신 만나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편지를 썼지만 오늘 이 편지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 됩니다. 아마도 이 편지 당신이 숨 쉬고 있는 동안 당신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13년이 시작되는 무렵 대학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보냈던 두어 달 시간이 아이들과 정상적인 생활의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부산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다시 집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통증으로 좌절되고 말았어요.

9층 병동에 있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기까지 당신의 고뇌는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 정리하는 시간이 10여일 걸렸지만, 막상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와서는 참 편안하고 활기찬 병원생활로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프로그램에 여러 종류의 음악회와 원예치료, 명상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처음과 달리 밝아진 당신 표정을 보았을 때 희망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신은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보고 싶었던 친구들과 친지들을 불러 이런저런 지나온 이야기 나누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고통 속에서도 웃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흐린 날씨의 오월 마지막 날!

앞으로 다가올 당신과의 이별이 예감되진 않지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워 할 땐 고통 없는 평온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사 눈물로 예수님께 기도를 했지만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라도 오래 같이 있었음 하는 맘이 들기도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두어 달 시간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켈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었던 일은 천주교 신자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교리를 받으면서 열심이었고, 마르코 수녀님과 루시아 대모님을 하루도 안 보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세례를 받던 날 가슴 벅차하며 눈물을 흘렸던 당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나를 당신 없는 사후에 하느님께 의지하라는 깊은 속마음을 가슴속으로 느낍니다.

오월 삼십 일일 당신의 아내 다니엘라

※ 다니엘은 6월 1일 아침 10시에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선종하심

은호야! 사랑하는 엄마가

은호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둥그랗고 순한 눈빛의 내 아들 은호야

우리 은호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 못해 주는게 너무 가슴 아프구나.

지금 중학교 3년이 사실은 은호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야... 알지?

그래서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이 고비를 잘 넘겨주라, 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은호, 은호, 은호, 응원할게

엄만, 우리 은호가 태어나서 많이 행복했었던다. 엄마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알게 해준 은호, 내 아들 은호야... 정말 고마워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항상 할머니, 아빠, 이모, 형아랑 상의하고....

할머니와 아빠가 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죽음이 코앞에 다가 왔을 때 절실한 것이 뭘지 아니?

시간의 소중함, 오늘이라는 선물이란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소중함...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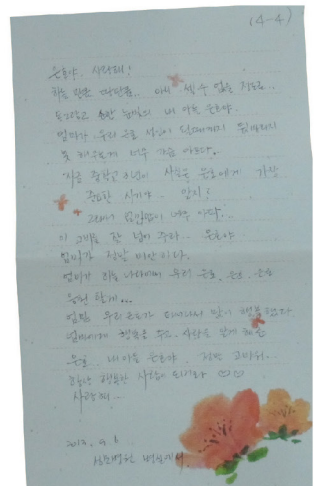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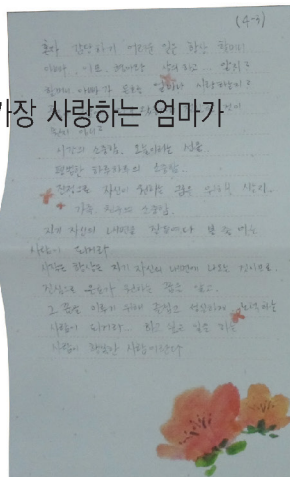
시작은 항상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진심으로 은호가 원하는 꿈을 알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다.

사랑해...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2013년 9월 16일 선종하심)

태수가 사랑하는 성희에게



보고 싶은 아내에게

‘하늘 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지만 쉽게 당신을 잊을 수가 없네요.

여보!

당신 사진을 보면 눈물이 계속 흘러 사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행여 나약해지면 아이들에게 누가 될까봐 해야될 수 없이 혼자서 참고 또 참는다고요. 당신이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사랑해주고 좋은 곳에서 추억도 많이 만들어 좋은 남편이 될 걸 후회합니다. 약 9개월 동안 당신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 끝까지 우리 가족만 걱정하다 혼자서 먼 길을 떠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오늘 부산성모병원에서 귀한 시간을 만들어 미사도 드리고, 맛있는 점심, 멋진 공연을 보면서 사별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당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여보!

하늘 나라에서도 보고 듣고 있지요?

여보!

수없이 불러보고, ‘사랑해요’, ‘미안해요’라고 되풀이 하는데 당신은 대답이 없구려.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당신과 만날 것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푸근하고,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하고 바랍니다. 당신은 하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곳 걱정일랑 하지 말고.....

여보,

당신이 남긴 여러 가지와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게요. 그리고 당신이 가는 날까지 너무너무 사랑한 아들 도훈이와 딸래미 훈경이 뒷바라지를 당신 뒤편까지 열매 백배 심혈을 기울여 잘 보살필게요. 아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켜봐줘요. 여보 사랑해요. 영원히..... 그리고 미안해요. 함께하는 시간동안 내가 부족해 당신한테 잘해 주지 못해서.....

당신을 무지 사랑하는 남편 태수가

NEWS (완화의료소식)

1. 본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최학문 (요한), 김화일 (소피아) 자원봉사자 수상

최학문(요한)님은 1,000시간 이상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으로 '국립암센터 병원장상(호스피스 완화의료 우수자원봉사자상)'을 수상하였고, 김화일(소피아)님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상'을 수상하여 많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자랑과 귀감이 되었다.



2. 11월 13일 부산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사랑이 있는 세상'

본원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의 역할과 송고한 정신, 활동을 소개하였다. 오전 11시~12시 사이에 방송되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3. 부산간호협회 겨울호 소식지에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들의 일상에 대해 본원 완화의료센터 간호사들이 출연하여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및 가족들을 돌보는 여러 가지 활동을 알릴 수 있었다.



4. 본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에게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배지 증정

- | | |
|-----------------------------|-----------------------------|
| 1) 그린배지 (200시간 봉사자) : 9명 | 2) 실버배지 (500시간 봉사자) : 10명 |
| 3) 골드배지 (1,000시간 봉사자) : 6명 | 4) 골드2배지 (2,000시간 봉사자) : 1명 |
| 5) 골드3배지 (3,000시간 봉사자) : 1명 | |

5. 11월 11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심화교육 실시

가톨릭 전례상 11월 위령성월을 맞아 본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진주사봉공소에 있는 정찬문순교자 묘소를 방문하여(정찬문순교자는 한국 순교자 시복시성 대상자 : 하느님의 종, 124위 중 한분)순교자의 얼을 기렸다. 문산성당에서는 한종민 아누아리오(부산성모병원 원목실장)신부님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였고, 자랑스런 문화유산인(국가지정 등록 문화재 제35호) 성당 건축물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진양호 공원 및 동물원을 방문하여 소진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의 영육간의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NEWS (완화의료소식)

6. 제 4회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진전

- ◇ 일 시 : 2013년 10월 7일 ~ 25일
- ◇ 장 소 : 부산성모병원 1층 로비, 10층 완화의료센터 프로그램실
- ◇ 전 시 : 호스피스 관련 사진 36점, 수필 6점 플랜카드



7.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조사

- ◇ 일 시 : 2013년 10월 7일(월) ~ 10월 17(목)
- ◇ 장 소 : 부산성모병원 1층 로비
- ◇ 대 상 : 부산성모병원 내원 환자 및 가족, 인근 주민
- ◇ 내 용 : 논문을 위한 설문지 조사 및 기념품 배부
포스터잇에 “호스피스란? 본인들의 생각을 써서 붙임



8. 국립암센터 완화의료주간 행사 참석

- ◇ 일 시 : 2013년 10월 11일(금) 10:00 ~ 17:00
- ◇ 장 소 : 국립암센터 및 건국대학병원 새천년기념관 방문
- ◇ 참석인원 : 직원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11명



9. 2013년 사별가족 만남의 날

- ◇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10:30 ~ 15:30
- ◇ 장 소 : 부산성모병원 4층 성당/ 4층 베네딕도 홀
- ◇ 참석자 : 2013년 완화의료센터 사별가족 40여명



10. 환자 및 가족 특식제공

- ◇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16:30 ~ 17:30
- ◇ 장 소 : 부산성모병원 10층 완화의료센터
- ◇ 참 석 : 환자 및 가족 50여명
- ◇ 음 식 : 찰밥, 김밥, 시락국, 수육, 김치 및 삼색나물, 식혜, 과일 등

11.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기본 교육

- ◇ 일 시 : 2013년 11월 19일(화) ~ 11월 20(수) 08:30 ~ 17:30
- ◇ 장 소 : 부산성모병원 4층베네딕도홀 / 3층세미나실
- ◇ 교육생 : 약 60여명



●● 완화의료센터 외래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정현주 김선경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1,3,5주) 김선경(2,4주)
오후	정현주 김선경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 정현주과장 외래진료 051) 933-7971 * 단 가정의학과 외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료함
- 김선경과장 외래진료 051) 933-7243

- 문의 및 예약안내
- 병 원 대 표 전 화 TEL:933-7114
 - 완화의료센터상담 TEL:933-7133
FAX:932-8636
 - 완화의료센터병동 TEL:933-7100
 - 추 모 원 TEL:933-7480, 7129

●● 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동래방면 131번
 - 마을버스 남구 2, 2-1, 8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해운대방면 39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EL:051)933-7958 FAX:051)933-8600